

세계적 석학, 유명 저자들 잇따라 내한

하버마스·프리고진·시오노 나나미 등... 학술대회 참가, 독자와의 만남 가져

위르겐 하버마스, 존 페리, 일리아 프리고진, 부르스 커밍스, 시오노 나나미, 와다 하루키, 페리 앤더슨, 노마 필드, 보리스 까갈리츠키, 하비 콕스, 앤드류 그로브. 이 낮익은 이름의 주인공들은 최근 몇달새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세계적인 석학 및 작가이다.

대부분 학술대회 참가나 자신의 저서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은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로 국내 학계에 신선한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버마스 등 석학들 학술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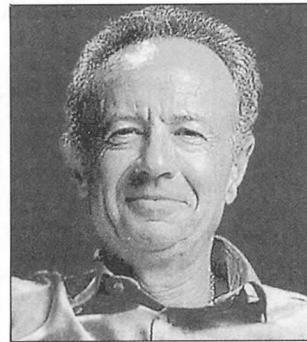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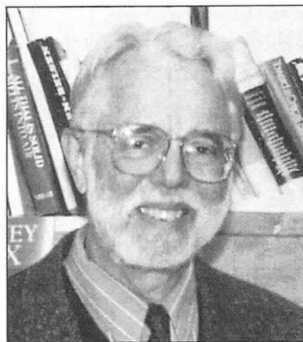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서울대학교 서남재단 초청으로 방한해 보름간 국내에 머물다 돌아간 위르겐 하버마스는 '금세기 서양철학의 거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인물. 《자본론》 이후 서양철학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론과 실천》 《인식과 관심》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화 문제》 《의사소통 행위이론》 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저작들을 통해 독일 합리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풀어낸 하버마스의 방한은 국내 인문·사회과학계를 들뜨게 했다.

60년대 독일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력으로 국내 학계나 독자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하버마스는 이번 방한기간 동안 '통일문제와 국민주권' '정보사회와 시민사회' '근대성의 철학적 개념' 등을 주제로 모두 8차례의 공개 강좌 및 세미나를 가졌다.

그는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전망에 관한 강연에서 "줄곧 독자성을 유지해온 폐쇄적인 북한과 급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갖가지 사회병리현상을 빚고 있는 남한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한이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이며, 그 통합은 법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규범적인 유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오는 5월21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석학과 유명 저자들이 최근 몇달새 잇따라 내한하고 있다. 하버마스를 비롯해 프리고진, 페리 교수 등 석학들의 학술강연과 시오노 나나미 등 유명 저자의 독자와의 만남 행사로 책으로만 접하던 이들을 직접 만날수 있게 됐다.



위쪽 왼쪽부터 위르겐 하버마스·시오노 나나미·일리아 프리고진·하비 콕스·앤드류 그로브·보리스 까갈리츠키.

'대한화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차 내한하는 1977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벨기에의 화학자 일리아 프리고진 교수는 카오스이론의 선구자로 그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화학계는 '프리고진 열풍'에 휩싸여 있다.

그는 5박6일의 체류기간 동안 ▲카오스 : 새로운 패러다임(22일, 이화여대) ▲과학과 예술에서의 창조성(23일, 롯데호텔) ▲시간, 카오스 및 자연법칙(24일, 연세대) 등의 대중강연을 가진 다음 5월 25일 범양사 출판부 구기동 서재에서 '동서양의 생명관'이라는 주제로 계간 《과학사상》과 화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국내 자연과학계는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다. 그는 현대 자연과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현존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점가에도 반향 커

《로마인 이야기》 《남자들에게》 《바다의 도시 이야기》 《나의 친구 마키아 벨리》 등을 내놓으며 국내 서점가에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시오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출신 여성작가 시오노 나나미도 5월 20일 자신의 책을 국내에서 출간한 한길사의 초청으로 내한한다.

4박5일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인 시오노 나나미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역자 및 국내

연구가들과의 만남을 먼저 가진 다음 신문사 및 잡지사 인터뷰를 가진다. 5월 23일에는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종합전시장 한길사 부스에서 독자사인회를 갖고, 방한 마지막날에는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주재 일본기자단 간담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오는 8월에는 《세속도시》의 저자이자 신앙인의 현실참여를 강조해온 신학자인 미국 하버드대의 하비 콕스가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에 올 예정. 《영성·음악·여성》(동연출판사)의 국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방한하는 그는 8월 26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강연을 가진다.

이밖에도 울들어 한국을 다녀간 해외 유명 석학 및 필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4월 30일 한국인지과학회와 철학연구회가 LG전자의 후원으로 초청해 방한했던 미국 스탠포드대 철학과 석좌교수인 존 페리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인간환경 설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론가로 '인조 공간에서의 정보인 : 인간 조건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주제의 대중강연과 이정민(서울대 언어학), 김영정(서울대 철학), 조옥라(서강대 인류학) 교수 등 국내 학자들과의 토론을 가졌다.

4월24일부터 3일간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 -민중과 민족·지역 운동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계간 《창작과비

평》 창간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서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등의 저자인 좌파이론가 페리 앤더슨,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론가인 보리스 까갈리츠키,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와다 하루키,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의 저자인 시카코대 노마 필드 교수 등 세계 유명 사회과학자들이 대거 방한해 국내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국내 학계의 넓어진 시각 반영

지난 5월 3일에는 미국 인텔사의 사장이자 반도체과학자인 앤드류 그로브가 자신의 저서 《관리혁명》(대경출판)의 출간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했고, 1월에는 《디지털이다》의 저자인 미국 MIT대학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조선일보와 LG전자의 초청으로 내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해외 석학 및 유명 저자들의 내한이 최근들어 늘고 있는 것은 국내 학계와 기업의 시각이 세계화 분위기 등으로 인해 폭넓어진데다 그들의 책을 국내에서 출간한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은 바 크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방한은 특히 시대변화로 다소 위축되고 있는 인문학과 순수과학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국내 학자들과 독자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허연 기자